

이름은 주술이다

- 『山海經』에 나타난 命名의 사유방식과 그 변용들

최진아**

<目 次>

1. 시작하는 말
2. 『山海經』 속 명명의 사유방식: 異物에 대한 장악
3. 중국 고전서사 속 주인공의 명명과 작자의 기획
4. 명명과 주술적 서사의 현대적 변용들
 - 1) 황지우의 『山經』과 김탁환의 『부여현감귀신체포기』
 - 2)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나츠메 우인장', '십이국기'.
 - 3) 드라마 '힐러'와 등장인물의 이름
5. 이름은 주술이고 이데올로기이다.

1. 시작하는 말

우리는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는가? 한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존재와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 어떠한 지식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지닌 힘을 가늠할 수조차 없었을 때 두려움은 극에 달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존재, 뭐라고 부를지 알 수조차 없는 이상한 존재에게 내 방식대로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한다. 그 다음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면 어느 사이 안심이 된다. 왜냐하면 그 존재에게는 이름이 있고 우리는 이름을 이미 알고 부를 수 있기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낯선, 두려운 異物에 대하여 명명을 하고 이를 통해 그 대상을 장악하고자 했던 일종의 주술적 사유방식은 인간에게 또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다른 면에서는 일종의 호기심과 즐거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알지 못하기에 더욱 궁금해지는 이물에 대한 호기심은 이물을 멀리 배척해 버리고 싶은 공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의 이름을 붙이는 기록을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그 기록은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절대로 합리적이거나 교훈적일 필요가 없었고 현실 세계 저편의 환상적인 이야기로 필연적으로 구성되어졌다. 이러한 사유방식에 근간하여 성립된 중국 최초의 서사가 바로 『山海經』이다.

중국 고전 『산해경』에는 생경스런 이물의 특성과 함께 그것의 이름이 제시되어 있다. 이물에 대한 특성, 이물의 이름 등의 지식을 습득하면 이물은 더 이상 낯선 이물이 아니다. 이물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기에 우리는 이물이 지닌 힘까지도 통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물은 이제 우리의 영역과 이데올로기 속으로 들어오고 두려움 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획득과 보유의 즐거움,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낯선 이물의 이름을 명명하는 중국 고전 『산해경』의 사유 방식에 먼저 집중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름 짓기와 이름 부르기의 행위가 지닌 이데올로기적 속성에 대해서도 고찰할 것이다. 또한 이같은 이름의 명명과 주술적 사유의 전통이 중국 고전 『산해경』에서 뿐 아니라 중국의 고전 서사에서도 줄곧 의식적으로 시행되던 방식이었음도 작품의 예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대 시, 소설 및 일본의 애니메이션, 오늘날의 드라마 등에도 명명의 주술적 사유방식이 고스란히 발현되었음에 주목하겠다. 이는 곧 이름과 주술에 대한 중국 고전서사의 문화적 원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山海經』 속 명명의 사유방식: 異物에 대한 장악

이름 부르기에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즉 이름이 불려지는 대상에게는 이름

을 부르는 자의 사유방식과 욕망이 덧씌워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의 철학자 알튀세르는 ‘호명(interpellate)’이라는 개념을 상정한다. 이름으로 호칭되는 행위, 혹은 악수를 하는 행위를 통해 그 대상은 이름을 부르는 자, 악수를 청한 자가 속한 기존의 사회 질서로 편입된다는 것이다.¹⁾ 따라서 이름 부르는 나의 이데올로기를 남에게 적용시키는 일종의 주술이 되는 것이다. 본래 영어의 ‘Spell’이라는 단어에 ‘글자의 철자를 말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주술로 엮어매다’라는 뜻이 있음을 연상시킬 때 어떤 존재에게 명명을 한다는 행위 자체는 결국 나의 영역으로 그 존재를 엮어매는 주술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예로 異物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책 『山海經』의 「南次二經」에서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괴상한 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록하며 그 새를 이름 부르기의 주술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곳의 어떤 새는 생김새가 올빼미 같은데 사람과 같은 손을 갖고 있고 그 소리는 마치 암매추리의 울음과도 같다. 이름을 ‘주’라고 하는데 제 이름을 스스로 불러대며 이것이 나타나면 그 고을에 귀양 가는 선비가 많아진다.

(有鳥焉，其狀如鴟而人手，其音如痺，其名曰鴟，其名自號也，見則其縣多放士.)²⁾

이 괴상한 새는 올빼미의 형상과 비슷하지만 사람의 손을 가진 이물이다. 게다가 이 새가 나타나면 고을에 귀양 가는 선비도 많아진다니 불길한 두려움을 자아내는 존재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새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새를 만나게 될 때 이미 자신 있게 이 새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영역 속에서 그것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곳의 어떤 새는 생김새가 까마귀 같은데 세 개의 머리와 여섯 개의 꼬리를 갖고 있고 잘 웃는다. 이름을 ‘기여’라고 하며 복용하면 사람을 가위눌리지 않게 하고 또 흉한 일도 막을 수 있다.

(有鳥焉，其狀如烏，三首六尾而善笑，名曰鴟余鳥，服之使人不厭，又可

1) 루이 알튀세르 지음, 김동수 옮김, 『아미앵에서의 주장』, 서울: 숲, 1991.

2) 정계서 譯註, 『山海經』「南次二經」, 서울: 민음사, 1993.

以禦凶.)³⁾

생김새가 까마귀와 비슷한 이 이물은 잘 웃는 새이다. 합리적 질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새의 존재에 대해서 ‘기여’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리고 ‘기여’라는 이물은 이제 이름을 붙인 우리의 이데올로기 안으로 편입된다. 그러므로 이물의 이름을 짓고 부르는 행위는 단순한 명명이 아니라 주술이 되는 것이다. ‘주’도 ‘기여’도 그것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우리의 것이 되었고 ‘주’와 ‘기여’가 지닌 힘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명명과 주술에 대한 중국 고전의 사유방식은 『산해경』 뿐 아니라 그보다 이후 시대의 서사인 『神異經』에서도 아래와 같이 등장한다.

서북쪽에 있는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호랑이와 비슷하고 날개로 날 수 있어 사람을 채뜨려 잡아먹는다. 사람의 말을 알아 들어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는 번번이 정직한 사람을 잡아 먹는다. 어떤 사람이 성실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의 코를 베어 먹고 흉악하고 그릇되다는 말을 들으면 항상 짐승을 잡아 선물로 바친다. 이름을 ‘궁기’라고 하며 여러 새나 짐승도 잡아 먹는다.

(西北有獸焉，其狀似虎，有翼能飛，使剿食人。知人言語，聞人鬪，輒食直者。聞人忠信，輒食其鼻，聞人惡逆不善，輒殺獸往饋之，名曰窮奇。亦食諸禽獸也.)⁴⁾

궁기는 식인 괴물이다. 온 세상의 날짐승과 길짐승은 인간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궁기는 오히려 인간을 잡아먹는다. 따라서 궁기라는 이물로 인하여 인간은 생물학적 진화의 마지막에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생명체가 인간 위에 존재한다는 본능적 불안감에 압도된다. 성실한 사람의 코를 베고 흉악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궁기의 행위는 인간이 설정한 합리적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인간 사회의 질서가 결코 통하지 않는 세계는 비합리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끔직한 이물의 이름이 ‘궁기’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궁기’의 이름과

3) 『산해경』 「西山經」, 99-100쪽.

4) 김지선, 『神異經』 「西北荒經」, 서울: 박영률, 2008.

특성을 알기에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궁기’라는 이름을 짓고 부르는 것으로써 우리는 ‘궁기’가 속한 세계의 힘까지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어떤 존재의 이름을 명명하는 것으로써 그 존재를 장악할 수 있다는 사유 방식은 곧 이름을 명명, 호명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대한 주술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정리되어진다. 그런데 이같은 명명과 주술을 연관시키는 서사의 전통은 비단 『산해경』류의 고전 서사에서 잠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미 명명과 주술의 연계성은 중국 고전서사 자체에 내재하며 『산해경』이후로도 존재하며 하나의 서사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왔다.

3. 중국 고전서사 속 주인공의 명명과 작자의 기획

‘길은 다녀서 만들어지고 사물을 불러서 그리 된다’⁵⁾는 莊子의 언급처럼 어떤 대상을 이름 짓고 부르는 행위는 중국 고전서사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중국 고전서사의 작자들은 서사의 주인공들의 이름을 결코 아무렇게나 대강 짓지 않았다. 그들은 선형적으로 이름이 주는 주술적 의미가 서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다. 즉 중국 고전서사의 이름은 서사 자체를 이끌어가는 작자의 기획이고 작자가 독자에게 거는 주술인 셈이다. 앞서 언급한 『산해경』에서 처음 보는 두려운 존재에게 이름을 붙였듯이 중국 고전서사의 작자들은 자신이 설정한 인물의 명명을 통해 자신의 기획과 이데올로기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唐나라 시기의 筆記인 『北里誌』⁶⁾에는 수많은 기녀의 이름이 등장한다. 따라서 기녀의 이름들을 분석해 보면 『북리지』의 작자와 그의 시대가 추구한 지향점 및 기획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 작품의 기녀들 가운데 天水仙哥, 兪洛眞, 小仙 등의 기녀는 이름에 선녀를 의미하는 ‘仙’ 혹은 도교와 관련된 ‘眞’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즉 天水仙哥의 ‘선가’는 선녀를 의미하는 것

5) 『齊物論 第2』, 楊柳橋, 『莊子譯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道行之而成, 物謂之而然”.

6) 최진아, 『북리지, 교방기』, 서울: 소명, 2013.

이고 俞洛眞의 ‘낙진’은 洛水의 여신인 宓妃를 의미하는 말이다. 小仙 또한 선녀를 지칭한다. 그녀들의 이름에는 모두 신선의 세계를 추구하는 당시의 도교 문화적 분위기가 담겨 있다. 비단 이름 만이 아니라 같은 작품 속 기녀들의 字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름 안에 도교 문화의 원리를 담고 있다. ‘천수선가’의 자는 ‘絳眞’인데 ‘강’은 진홍색 단약의 이름이고 ‘진’은 선녀를 의미한다. 또한 ‘萊兒’라는 기녀의 자는 ‘蓬仙’인데 ‘萊’, ‘蓬’ 모두 신선이 거주한다는 봉래산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당나라 시기 기녀의 이름은 당나라 사회와 문화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 당시 당나라의 도교적 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선녀와도 같은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당나라 기녀들의 이름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작자는 그러한 기녀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부르면서 선녀의 세상을 소유했다고 여겼을 것이다. 비슷한 예로 같은 시기의 傳奇 작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이름에는 선녀와 신선의 세상을 갈망하는 작자의 기획이 나타나는데 바로 裴鏞의 『傳奇·裴航』⁷⁾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작품에는 신선이 되길 소망하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한다.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배항’이다. 그는 배를 타고 여행 중인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동시에 그의 여행은 단순히 물을 건너는 항해가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서 得仙을 추구하는 항해이기도 하다.

남자 주인공 배항은 우연히 ‘雲英’이라는 이름의 여자 주인공을 만난다. 그리고 운영과 결혼하기 위해 세가지 시험이라는 역정을 거쳐서 결국 그녀와 혼인하고 신선이 된다. 그런데 이 작품 속 여자 주인공인 ‘운영’이란 이름은 작자의 기획에 의해 명명된 이름이다. 즉 운영은 오색의 광물질인 雲母를 말하는 것이며 선약을 제조할 때 바로 이 운모가 사용된다. 이는 곧 전기 속 여자 주인공의 이름에 작자가 주술적 장치를 걸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자 주인공의 이름을 다름 아닌 ‘운영’으로 명명함으로써 그녀를 얻으면 득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이름 속에 내포된다. 남자 주인공은 항해와 같은 긴 고난이 과정을 통해 선약인 운영을 얻는 것이다. 이처럼 작자는 남녀 주인공의 이름을 통해 서사를 기획한다.

7) 배항 지음, 최진아 옮기고 풀어씀, 『전기: 초월과 환상, 서러운 편의 기이한 이야기』, 서울: 푸른숲, 2006.

이와 같이 중국 고전서사 속 이름은 서사의 압축판이기도 하다. 이름을 보면 작자가 기획한 서사의 결말이 예상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예로 명말 청초 화본 소설인 『型世言』의 제5권 「淫婦背夫遭誅 俠士蒙恩得有」 및 『歡喜冤家』가운데 제8권 「鐵念三激怒誅淫婦」는 당나라 전기 작품인 沈亞之의 「馮燕傳」을 각색한 것이다. 본래 전기 작품에서는 풍연이라는 남자가 장씨의 부인과 사통을 하던 중 장씨에게 발각될 뻔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장씨의 부인이 자신의 남편 장씨를 죽이고 이 광경을 본 풍연은 의로운 마음에서 오히려 자신의 사통대상인 장씨의 부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형세언』과 『환희원가』에 이르면 동일한 모티프를 유지하는 가운데 작품 속 남자 주인공의 이름에 변화가 생긴다. 즉 작자가 기획한 대로 남자 주인공의 강직함과 俠義를 강조하기 위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풍연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형세언』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단단하다’는 의미의 ‘堦’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환희원가』에서는 작품의 첫머리에서 남자 주인공에 대해 ‘철념삼은 사람됨이 강직한 성격을 지녔다(鐵念三爲人性直)’라는 설명을 부가하면서 그의 이름을 강철과 같은 균음을 연상시키는 ‘철념삼’으로 명명하였다.⁸⁾ 이러한 남자 주인공의 명명은 작자가 작품을 통해 기획한 의도, 즉 강직하고 의협심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관철시켜 이들 서사를 완성하게끔 만드는 주술적 장치가 되는 것이다.

중국 고전서사에 투영된 이름과 주술의 문화적 전통은 淸나라 시기의 『紅樓夢』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홍루몽』의 주제는 ‘아름다운 젊은 날, 아름다운 봄날의 사라짐’이다. 애상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이 서사 속의 인물들은 각기 자신의 이름에 주술을 담고 있다. 그 중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이름 속에서 제일 확연하게 구현한 인물들로는 元春, 迎春, 探春, 惜春이라는 네 자매가 있다. 네 자매의 이름과 그녀들의 미래는 이미 그녀들의 이름 속에서 결정되어 있다. 즉 그녀들의 이름은 그녀들의 운명 및 봄이 사라지듯이 영락해가는 賈氏 집안의 앞날을 말해 주는 주술로써 독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자매의 첫째 딸

8) 김민호, 「歡喜冤家 小考-인물 형상의 다면성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한국중국소설학회, 제7집, 1998.

인 원춘은 賈氏 집안의 영화를 상징한다. 새해 첫날 태어났기에 붙여진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는 집안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지위인 황제의 貴妃가 되지만 불행히도 요절한다. 둘째 딸인 영춘은 격에 맞지 않는 남성과 결혼하여 불행한 삶을 살다가 아직 오지도 못한 인생의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뜬다. 셋째 딸인 탐춘은 봄의 절정을 상징하듯이 총명하고 재주 있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망해 가는 가씨 집안의 상황에서 그녀는 먼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어 버린다. 그녀는 그저 봄을 탐색할 뿐이지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막내딸인 석춘은 비구니가 된다. 지나간 봄을 애석해 한다는 그녀의 이름은 바로 그녀의 운명이다. 덧없이 지나간 봄처럼 스러져 버린 가씨 집안의 영화는 그녀의 이름처럼 안타깝고 애석할 따름이다.⁹⁾ 만일 이들 인물들이 『홍루몽』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 아마도 그들의 이름은 '張三李四' 등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이들 인물의 이름을 명명할 때 작자는 앞으로 전개될 서사의 구도와 결말을 미리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들의 이름에 일종의 주술적 장치를 하였고 독자들은 원춘, 영춘, 탐춘, 석춘이라는 이름을 읽고 부르면서 『홍루몽』의 마지막이 그녀들의 이름 순서와 같이 될 것이고 그녀들의 운명 또한 이름과 같을 것임을 예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성씨인 '賈'의 발음이 거짓이란 의미인 '假'와 같은 발음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원춘, 영춘, 탐춘, 석춘의 이야기가 모두 마치 꿈에서 본 것과 같은 '거짓'이라는 장치까지 작자는 설정하였다.

9) 최용철, 「홍루몽 인물의 명명 예술과 의미 분석」, 『중국학논총』, 한국중국문화학회, 제16집, 2003.



〈원춘과 영춘〉



〈탐춘과 석춘〉

이상에서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중국 고전서사 『산해경』에서 명시된 이름과 주술이라는 문화적 전통이 『산해경』이라는 책에서 이물을 명명하는 사유방식의 근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산해경』이외의 수많은 중국 고전서사를 관통하는 서사현상임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사의 전통, 이름과 주술의 문화현상은 비단 고전 작품 속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일까?

또한 본 논문에서는 명명과 호명은 그것을 부르는 자들의 이데올로기의 영역 속으로 편입시키는 주술이고 명명과 호명을 통해 우리는 그 이름을 지닌 자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 이름을 지닌 자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유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명명과 호명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과연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인가? 이름과 주술의 서사 전통은 현대에 어떠한 방식의 서사로 변용되었는가?

4. 명명과 주술적 서사의 현대적 변용들

1) 황지우의 「山經」과 김탁환의 『부여현감귀신체포기』

앞서 설명했듯이 명명과 주술은 중국 고전서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임을 확인하였다. 그 가운데 『산해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異物의 이름을 붙이고 부르는 행위는 낯선 세상을 기록하는 서사의 형태로 우리나라의 현대시 「山經」에서 변용되기에 이른다. 「산경」의 작가 황지우는 본인 스스로가 『산해경』의 형식을 계승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는 이 작품에서 이물의 이름을 기록하던 『산해경』의 서사 형식을 변용하면서 이에 더하여 작가 본인의 기획, 즉 현실풍자와 사회비판이라는 의도를 관철시켰다.

다시 북쪽으로 삼백리를 가면 上溪山이 나온다. 초목은 자라지 않으나 물이 많다. 이곳의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긴꼬리 원숭이 같은데 앞발이 다섯이요, 뒷발이 셋이다. 이름이 狗鱗이며 소리는 나무를 찍는 듯하고 이것이 나타나면 그 고을에 철거와 토목공사가 많아진다.¹⁰⁾

이 시는 일견 보기에 고전 『산해경』에서 나타난 이물의 이름을 기록하는 서사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음이 명백하다. 앞발이 다섯이고 뒷발이 셋인 異物은 ‘구칭’이라고 명명된다. ‘구칭’이라는 이물은 고을에 철거와 토목 공사를 많아지게 하

10) 황지우, 「산경」 ‘남산경’.

는 주범이다. 이와 같이 시인은 이물의 이름을 기록하는 『산해경』식의 서사 자체를 원용하며 그 당시 구청에서 무분별하게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을 비판하는 기제로 삼는다.

다시 북쪽으로 오백리를 가면 소요산이다. 이곳에는 바다 건너온 猩猩
이들이 드글드글하다. 어떤 것들은 생김새가 사람 얼굴에 닭깃 같은 머리
를 하고 온몸에 노란 털이 낫으며 다리가 세 개인데 가운데 하나는 성기이
다.....워낙 이 짐승들은 떼거리로 몰려 교미하기를 좋아하고 난폭하다.
이것들은 고을의 젊은 여자들을 잘 잡아 먹는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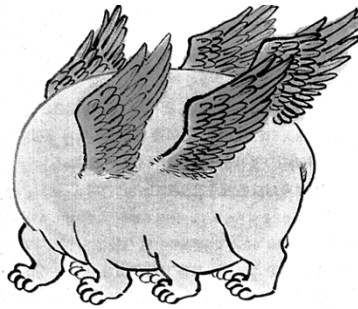
위의 글 또한 '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물을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당시 소요산 부근의 미군들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들을 비판한 것이다. 저자는 『산해경』에서 이물의 이름을 명명하는 서사의 문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재생산해 나간다. 그 가운데에서 이름과 주술의 서사적 전통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물을 명명하고 이물의 특성을 기록하는 서사는 읽는 이에게 정보와 지식을 보유했다는 즐거움을 준다. 이는 마치 일종의 백과사전적 지식을 보유한다는 기쁨과도 유사하다. 마치 박물관의 진열품들을 다양하게 늘어놓고 그것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우월감처럼 이물 기록의 서사는 이미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를 보유한다. 기록되기 전의 이물은 他者일 뿐이지만 기록되어진 이물은 작자가 명명한 이름에 의해, 작자가 배열한 질서에 의해 정리되고 작자의 기획 아래로 들어오기 때문이다.¹²⁾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물 기록의 서사 전통은 또다른 우리나라의 현대 소설인 「부여현감귀신체포기」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이 책의 저자 김탁환은 서문에서 자신의 작품이 『산해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집필되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저자 김탁환은 황지우가 「산경」에서 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물 기록의 서사 그 자체를 활용한다.

11) 상동.

12) 이와 같은 백과사전 식 이물 기록의 서사로 魏晉시기 張華의 『博物誌』나 고대 로마 시기 플리니우스의 박물지(Historia Natualis)를 거론할 수 있다.

어른 주먹보다 조금 작다. 몸은 자루처럼 둥글고 날개가 다섯, 다리가 일곱이다. 누런 피부를 가졌지만 감정 변화가 심하면 불꽃처럼 붉게 변한다. 몸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는데 그 크기를 잴 수 없다. 날개를 파닥거릴 때는 네 개가 서로 엇갈린다. 나머지 하나는 뚫대처럼 곤두서서 꼼짝도 않는다.....머리가 없기 때문에 앞뒤도 없다. 온몸을 털어 말을 하는데 그 소리는 흔들리다가 지친 갈대를 닮았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소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잼잼의 소리를 접할 때는 크게 심호흡을 하는 것이 좋다. 음악을 좋아하고 춤추기를 즐긴다. 우정을 나누면 백 년 이상 벼를 따라다니며 지킨다.¹³⁾



〈부여현감귀신체포기: 잼잼〉

위의 「부여현감귀신체포기」에 등장하는 이물의 이름은 '잼잼'이다. '잼잼'이라는 이름의 이물은 본래 『산해경』에 나오는 歌舞의 신인 滄江을 변용한 것이다. 위의 언급을 『산해경』의 제강에 대한 조항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곳의 어떤 신은 그 형상이 누런 자루 같은데 붉기가 빨간 불꽃 같고 여섯 개의 다리와 네 개의 날개를 갖고 있으며 얼굴이 전연 없다. 가무를 이해할 줄 아는 신이 바로 제강이다.

(有神焉, 其狀如黃囊, 赤如丹火, 六足四翼, 渾敦無面目, 是識歌舞, 實爲滄江也.)¹⁴⁾

13) 『부여현감귀신체포기 1』, 33-34쪽.

14) 『山海經』, 「西山經」, 98쪽.



〈산해경: 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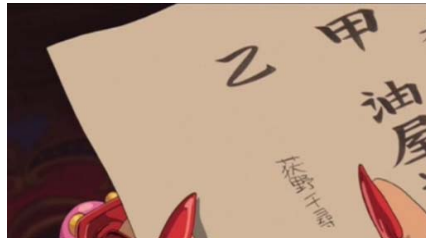
『산해경』의 제강은 여섯 개의 다리와 네 개의 날개를 갖고 있으며 가무를 이해하는 신이다. 이러한 제강의 형상은 「부여현감귀신체포기」에서 날개가 다섯, 다리가 일곱인 잼잼으로 변용되고 가무를 이해한다는 제강의 특성은 음악을 좋아하고 춤추기를 즐긴다는 잼잼의 모습으로 연계된다. 제강과 잼잼이라는 이물을 이름짓고 그 특성을 기록하여 우리의 이데올로기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동일한 형태의 주술적 서사이다. 『산해경』에서 사용되던 이물 기록의 서사 전통은 「부여현감귀신체포기」라는 현대 소설 안에서 그대로 유효하게 수용된 것이다.

2)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나츠메 우인장', '십이국기'.

『山海經』에서 근간한 명명과 주술적 서사의 전통은 현대 애니메이션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그 중 이름의 명명과 이름을 획득한 자가 지니게 되는 힘의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으로는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나츠메 우인장' 및 '십이국기'를 거론할 수 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2001년에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이다.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 치히로는 이상한 세계로 빠져 들어가며 그곳에서 부모가 돼지로 변하는 장면을 목도한다. 주인공은 부모를 되찾고 자신의 세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상한 세계의 마녀인 유바바의 하인으로 고용된다. 바로 그 때

유바바는 주인공의 이름 '치히로千尋'에서 '尋'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千'만을 주인공에게 남겨 주어 주인공의 이름을 '센'으로 바꾼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름을 빼앗는 장면〉

이후 이상한 세계 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결국에는 부모를 되찾아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 과정에서 이름은 마녀 유바바와 주인공 사이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즉 이름을 누가 어떻게 부르는 지에 따라서 그 이름의 주인 또한 이름을 가지고 부르는 주체에게 예속되기 때문이다. 마치 『산해경』에서 異物의 이름을 '주', '기여' 등으로 호명하면서 그 이물의 힘도 이름을 부르는 자가 가지게 되는 것처럼 '치히로'가 아닌 '센'으로 마녀 유바바에 의해 호명되는 이름은 마녀 유바바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명명과 주술성에 대한 주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뿐 아니라 또다른 애니메이션인 '나츠메 우인장(夏日友人帳)'에서도 등장한다. 미도리카와 유키의 작품인 '나츠메 우인장'에서 '우인장'이라는 것은 친구의 이름을 기록한 수첩을 뜻한다. '나츠메 우인장'의 주인공인 나츠메 다카시는 어느 날 외할머니의 유품인 우인장을 발견한다. 그런데 그 우인장이라는 것에 적혀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옛날 나츠메의 외할머니가 요괴를 퇴치할 때마다 기록된 요괴의 이름이었다. 따라서 외할머니가 기록한 요괴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인장 안에 기록된 요괴들은 나츠메의 명령을 받고 나츠메는 그 요괴들의 힘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나츠메 우인장: 요괴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

이 이야기 역시 『산해경』에서 이물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지냄으로써 이물의 힘까지도 전유하게 된다는 사유방식을 계승한다. 즉 대상을 명명하는 행위가 다름 아닌 주술임을 명시하는 이들 애니메이션은 『산해경』에서 이물을 명명하고 기술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애니메이션 ‘십이국기(十二國記)’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다. ‘십이국기’에서는 상대의 이름을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한 전술의 하나로 등장한다.

서로 노려보다가 상대가 견디지 못하면 상대의 패기가 약해집니다. 그때 상대의 이름을 읽어 내는 것입니다……그것을 불러주면 요마는 스스로 발치로 다가옵니다. 이후 두 번 다시 기린에게 거스르지 않습니다. 요마를 사령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요마와 계약을 맺습니다……사령을 묶고 지키는 족쇄가 ‘이름’인 것입니다. 기린은 상대의 이름을 읽어 내고 그 이름을 새롭게 내려 자신의 종으로 삼습니다.¹⁵⁾

오노 후유미의 작품 ‘십이국기’는 내용 중에 ‘蓬萊’, ‘神仙’, ‘扶桑’ 등 『산해경』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지명, 용어 등이 나오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저자 자신이 ‘십이국기’는 『산해경』 위에 지은 작품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십이국기’에서 이름의 명명과 이름이 지닌 주술의 힘을 언급하는 것은 당연히 『산해경』을 직접적으로 계승하고 변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15) ‘십이국기’ 제19화.

3) 드라마 ‘힐러’와 등장인물의 이름

이름과 주술적 서사의 전통은 앞서 언급한 시, 소설, 애니메이션에서 뿐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발견된다. 드라마의 등장인물의 이름은 마치 중국 고전서사 『紅樓夢』의 등장인물들처럼 인물의 미래를 표상하고 드라마의 향후 전개를 예시해 준다. 따라서 드라마의 시청자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듣고 부르면서 이름이 지닌 주술에 연계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2월에 중영된 KBS의 드라마 ‘힐러’를 예시로 들면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이름의 명명과 주술적 서사의 논법을 착실히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힐러’의 여주인공의 이름은 ‘채영신’이다. 1월이 생일인 그녀는 ‘송구영신’ 하듯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감을 의미한다. 그녀의 파트너인 남자주인공의 이름은 ‘서정후’이다. 정답하고 기다린다는 의미의 ‘偵候’의 직업은 탐정이다. 그리고 정후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인물이 있다. 그 인물의 이름은 ‘강대용’이다. 또한 이 드라마에서는 실속 없이 일만 벌이고 꾸며대는 역할을 맡은 ‘문식’이란 인물이 등장한다. 이처럼 드라마 인물의 이름은 이들 등장인물이 지닌 특성과 드라마의 향후 전개를 예측하게 해 준다. 따라서 그들의 이름이 영신, 정후, 대용, 문식이어야 함은 이미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드라마의 시청자들은 영신, 정후, 대용, 문식이라는 이름을 듣고 부르면서 드라마 서사의 작자가 의도한 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사회언어학에서 ‘한 개인의 이름은 그 개인 뿐 아니라 한 시대가 표방하는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하여 이름이 지닌 사회적 기능에 대해 언급한다¹⁶⁾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결국 드라마의 등장인물을 명명하는 행위는 낯선 존재, 즉 異物을 우리가 정한 사회적 기능의 영역, 우리의 이데올로기 안으로 편입시키는 논법이 된다.

16) 강희숙, 「드라마 인물의 명명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우리말글』, 우리말글 학회, 제 58집, 2013.

5. 이름은 주술이고 이데올로기이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이름과 주술의 작동 원리가 일찍이 중국 고전서사 속에서 재현되었다는 사실에 근간하여 특히 『산해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름과 주술의 사유방식 및 현대적 변용에 대해 재해석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름을 명명하고 호명하는 과정에 개입되는 주체의 이데올로기적 속성과 이러한 이름을 명명하는 서사 그 자체를 향유하고 즐기는 전통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비단 『산해경』으로까지 소급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이름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속성, 그리고 이름을 규정하는 서사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¹⁷⁾’라는 시 구절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명명과 호명은 他者를 자신의 체계에 편입시키는 중요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름은 지난 역사 동안, 일제강점기의 강요에 의한 창씨 개명이라든가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에 의해 붙여진 지명¹⁸⁾ 등을 통해 이름을 호명하고 명명하는 주체의 힘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최근 개봉된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는 악령에 쓰인 어린 소녀에게 퇴마의식을 하던 신부가 악령의 이름을 끊임없이 호명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곧 그 이름을 장악했을 때 두려운 이물의 힘을 나의 이데올로기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사유방식이 이 영화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된 것이다. 이처럼 이름이 이미 그 안에 주술적인 사유 체계를 담지하고 있고 힘을 발휘하는 문화적 현상은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은 현재에도 진행되는 주술이고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17) 김춘수, 「꽃」.

18) 이러한 예로는 서구 열강에 의해 ‘발견’된 섬인 ‘이스트 제도’라든가 혹은 중국의 패권주의와 영토확장의 의도 아래 명명된 섬이름, 산이름 등을 들 수 있다. 정재서, 「平成 25년 경성중학」, 『서울신문 오피니언』, 2014, 4, 15를 참조.

〈參考文獻〉

- 김탁환 글, 백범영 그림, 『부여현감귀신체포기 1, 2』, 서울: 이가서, 2005.
- 동방삭 지음, 김지선 옮김, 『신이경』, 서울: 박영률, 2008.
- 루이 알튀세르 지음, 김동수 옮김, 『아미앵에서의 주장』, 서울: 숲, 1991.
- 미도리카와 유키, '나츠메우인장', 2008.
- 미야자키 하야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001.
- 오노 후유미, '십이국기', 1992.
- 정재서 譯註, 『山海經』, 서울: 민음사 1993.
- 최정은, 『동물·괴물지·엠블럼 중세의 지식과 상징』, 서울: 휴머니스트, 2005.
- 황지우, 『계 눈 속의 연꽃』,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8.
- 雷風行 編著, 『解讀名人姓名』, 北京: 華文出版社, 2002.
- 袁庭棟 著, 『古人稱謂漫談』, 北京: 中華書局, 2004.
- 何曉明, 『姓名與中國文化』, 北京: 人民出版社, 2001.
- 강희숙, 「드라마 인물의 명명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우리말글』, 우리말글 학회, 제 58집, 2013.
- 고영진, 「괴물에 대한 기록: 지괴의 교육학」, 『비평문학』, 제30호, 한국비평문학학회, 2008.
- 노성두, 「플리니우스 《박물지》 제34-36권」, 『미술사학보』, 제12호, 미술사학연구회, 1999.
- 송지나 극본, KBS 드라마 '힐러'.
- 안종혁,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신화적 기능: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중심으로」, 『디지털영상학술지』, 한국디지털영상학회, Vol.1, No.1, 2004.
- 정재서, 「平成 25년 경성중학」, 『서울신문 오피니언』, 2014, 4, 15.
- 최용철, 「홍루몽 인물의 명명 예술과 의미 분석」, 『중국학논총』, 한국중국문화학회, 제16집, 2003.
- 최진아, 「異物 기록의 정치학: 지괴의 독법과 김탁환의 '부여현감귀신체포기」, 『중어중문학』, 한국중어중문학회, 제46집, 2010.

〈Abstract〉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way of thinking about naming which signifies incantation in the Chinese classical narratives. In other words, the act of naming a new object—a kind of incantation is to dominate the object's power within my boundary. For instance, this paper examines the way of naming about “The mysterious creature” in *Shanhaijing*. Through the act of naming, one is putting their ideology into the unfamiliar and fearful object and these appear in both in *Shanhaijing* and *Shenyijing*. Specifically *Shanhaijing*, *Shenyijing* are books made by exorcist which are founded in the culture of Taoism. Hence the way of thinking in these books lead to connecting naming and incantation in the culture of Taoism. This thesis is concentrated on the name of T'ang dynasty's courtesan in the works of Biji. In the culture of Daoism, T'ang dynasty's courtesans were referred as Daosit goddess.

Through practicing incantation, one is hoping to get closer to the world of Daoist's heaven by calling a Daosit goddess's name.

As well, this thesis studied author of Chinese Vernacular Story to represent their ideology, and the naming of their characters relevantly.

Moreover, this thesis raised the name of heroin in *Hongloumeng* of Qing dynasty, which are, yuanchun, yingchun, tanchun, xichun.

Their names symbolized the corruption of Jia family, which is also the theme of *Hongloumeng*. In other words, the author of Chinese classical narratives arranged the character's name intentionally so that the readers can agree with the author's intent.

This thesis considered that the connection between naming “The mysterious creature” and incantation in modern poetry *Sankyong*, modern noble *The Record of Arresting Ghost by Buyeo Official Government*. These books are appropriated in *Shanhaijing*.

Shanhaijing is also linked with Japanese animations *The Spiriting Away Of Sen And Chihiro*, *Natsume Yuujincho*, *The Twelve Kingdoms*.

As a result, this thesis affirms that this cultural phenomenon in the Chinese classical narratives of *Shanhaijing* and other nobles is still existed and it is still continued to be used in the form of modern appropriation

Key Words: name, alien substance, Shnahajing, Chinese Classical Narratives, incantation, ideolgy, Daoism, appropriation, animation, drama.

이 논문은 2016년 1월 17일에 접수되어 2016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